

# “정헌율 시장 행정 철학 이어받겠다”

### 민주 이원택 의원, 정 시장 도시사 불출마 선언에 “경륜 높이 평가… 익산을 전북 성장 새 엔진으로 키울 것” 제2혁신도시 지정·‘핵심공약’ 푸드 벨트 구상도 차원 메가 프로젝트 격상 등 익산지역 맞춤형 정책 공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도시사 불출마를 선언한 정헌율 시장의 경륜을 높이 평가하며 “익산의 자부심과 정 시장의 행정 철학을 온전히 이어받아 익산을 전북의 확실한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헌율 시장은 지난 10여년간 익산의 디아로움 정책 등을 성공시키며 현장 행정의 진수를 보여주시는 분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해온 것으로 인다”며 “그간 정 시장의 전북 미래를 위해 노력

한 고민을 온전히 받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정 시장이 꿈꿔 온 익산 발전을 직접을 자신이 더 크고 확실하게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헌율 시장을 지지해 온 익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

기 위해 익산 맞춤형 정책을 대거 공개했다. 이어 그는 우선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맞춰 익산을 제2혁신도시로 지정하고, 황등 폐석산반광자원화, 익산 신단 리노베이션, 농생명파 금융 분야 5개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해 익산을 전북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익산을 스마트 농기계 및 지능형 피지컬 AI 실증단지 메카로 육성해 2030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5,000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 국가 방산 공급망의 핵심 기지로” 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민영 도시사가 전북 방산산업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전북의 미래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

### 민주 안호영 의원, ‘안호영의 해안’ 출판기념회 성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3선·국회 기후 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저서 ‘안호영의 해안’ 출판기념회가 많은 도민의 관심으로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개최됐다. 행사장에는 민주당 주요 인사들 비롯해 학계·문화계·종교계 인사와 도민들이 대거 운집해 안 의원의 정치적 위상과 조직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 약 70여명이 운·오프라인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정철대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조정식 대통령 정부무보,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은

이성윤 최고위원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안 의원의 인연을 소개하며 지지를 표했다. 또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영달 전 의원을 비롯해 문진석·이건태·차지도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도 행사장에 직접 참석해 축하를 건넸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정치인의 단순한 출간 행사를 넘어 안 의원이 구상해 온 전북 미래 전략을 도민에게 공개하는 정책 발표의 장으로 마련됐다. 안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도민 여러분의 응원과 기대를 무겁게 새기겠다”며 “전북의 미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도민들은 전북의 새로운 도약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출판기념회는 전북 대전환의 출발을 알리는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 /0만호기자

## “이재명 정부 성과, 전북 발전으로 연결”

### 윤준병 민주 전북도당위원장 현대차 9조 투자 발판 등 강조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정읍·고창 국회의원)은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에도 분명한 변화의 봄이 오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국가적 성과가 전북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전북 발전에 대해 밝히고 있다.

윤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란 격결과 경제 회복이라는 두 축을 통해 대한민국이 안정과 성장의 흐름을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코스피 지수가 2400선에서 출발해 사상 처음 6,000선을 돌파한 점을 언급하며 “시장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한 사실을 거론하며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과 부동산 시장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5년 합계출산율이 0.7명대에서 0.8명 수준으로 소폭 상승하며 9년 만에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집값 상승의 중심지였던 서울 강남 3구의 부동산 산 가격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이제 한국은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한 사실을 거론하며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과 부동산 시장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5년 합계출산율이 0.7명대에서 0.8명 수준으로 소폭 상승하며 9년 만에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집값 상승의 중심지였던 서울 강남 3구의 부동산 산 가격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이제 한국은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한 사실을 거론하며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과 부동산 시장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5년 합계출산율이 0.7명대에서 0.8명 수준으로 소폭 상승하며 9년 만에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집값 상승의 중심지였던 서울 강남 3구의 부동산 산 가격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이제 한국은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한 사실을 거론하며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과 부동산 시장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5년 합계출산율이 0.7명대에서 0.8명 수준으로 소폭 상승하며 9년 만에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집값 상승의 중심지였던 서울 강남 3구의 부동산 산 가격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이제 한국은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한 사실을 거론하며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과 부동산 시장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5년 합계출산율이 0.7명대에서 0.8명 수준으로 소폭 상승하며 9년 만에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집값 상승의 중심지였던 서울 강남 3구의 부동산 산 가격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이제 한국은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한 사실을 거론하며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과 부동산 시장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5년 합계출산율이 0.7명대에서 0.8명 수준으로 소폭 상승하며 9년 만에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집값 상승의 중심지였던 서울 강남 3구의 부동산 산 가격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이제 한국은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한 사실을 거론하며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과 부동산 시장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5년 합계출산율이 0.7명대에서 0.8명 수준으로 소폭 상승하며 9년 만에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집값 상승의 중심지였던 서울 강남 3구의 부동산 산 가격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 “군산 도약 위해 더 큰일 하겠다”

### 강임준 군산시장, 3선 도전 햇빛 수당 지급 등 공약 제시



강임준 군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시장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강 시장은 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지방정부 책임자는 시장은 시민들의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차별화된 정책을 모두가 잘사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가구당 최대 500만원 햇빛수당 지급 및 신형 1만원 아파트 공급을 포함해, AI·에너지가 이끄는 산업을 통한 미래산업 중심도시 도약, 근대역사문화화를 통한 한류문화 K-컬처산업 추진 교육비 제로도시 및 지역 대학들의 지원사업·KAIST 등의 융복합 캠퍼스 유치, 안전하고, 의료서비스 격차 없는 건강한 안심 도시 조성 등 전략을 약속했다. 강임준 시장은 “현대차그룹의 9조원

투자협약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신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새만금은 기업들에게 기회와 땅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해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받으며 온갖 흑색선전으로 피눈물을 흘릴 때 절치부심하며 군산의 미래를 준비했다”며 “이재명 정부와 코드가 가장 잘 맞는 강임준이 군산의 도약을 위해 더 큰일을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군산=김만호기자

## “머물고 싶은 전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 장재희 전주시의원, 효자5동에 재선 도전장

비례대표로 전주시의회에 입성해 3년 8개월여간 의정활동을 펼쳐온 장재희 의원이 이번에는 효자 5동 지역구에 도전장을 냈다.



정치적 역할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봉사 현장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도움을 드려며 정치가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며 “처음에는 아버지를 돕는 작은 역할이었지만 청년 정치인으로 직접 나서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봉사활동이 있었다. 효문화 관련 단체와 지역사회 보건의료의체, 자율방범대, 장애인 봉사 활동을 해 아버지를 보며 자연스럽게 정치의 역할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봉사 현장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도움을 드려며 정치가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며 “처음에는 아버지를 돕는 작은 역할이었지만 청년 정치인으로 직접 나서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했고 그 결과 인구정책팀 확대와 함께 ‘인구 청년정책’ 신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20대 청년과 60대 이상 노년층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많은데 아이를 키우며 부모를 부양하는 30~50대는 오히려 복지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구 도전으로 무대를 넓히는 그녀는 “지역구가 생기면 책임도 더 커진다”며 “효자 5동의 일꾼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0만호기자

## 도 3월 소통의 날 키워드는 ‘청렴’

### 공직사회 책임·성찰문화 강조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 도청 공영장에서 3월 소통의 날 행사를 열고 도청 직원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을 주제로 한 특강과 도청 현안 공유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전북자치도가 청렴도 향상 방안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소속 심호 전문강사가 초청돼 ‘당대주의 정관정도로 배우는 청렴’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심호 강사는 강연에서 당나라 태종 이세민의 통치를 사례로 들며, 겸허한 자기 성찰과 신하의 간언을 수용하는 리더십이 ‘정관의 치’를 이끈 핵심 요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더가 구성

원인 서로를 거울삼아 경계하는 조직문화가 청렴의 출발점”이라며, 공직사회 내 상호 신뢰와 책임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개인의 이익보다 조직의 가치를 우선하는 자세와 부정 청탁·금품수수 유혹을 스스로 차단하는 용기가 청렴의 본질임을 역설했다. 도는 이번 특강을 계기로 도청 전반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실천 과제를 공유하고, 부패 취약 분야 점검과 내부 통제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중요한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며, 공직자의 기본은 청렴”이라며 “청렴이 곧 신뢰이고, 신뢰가 도정의 안정과 발전을 이끄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0만호기자